

13. 문화예술진흥기금

1. 기금개요

설치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설치년도	1973년	운용개시년도	1973년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기관	

2.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중 운용평잔	자산별 비중 ^{주1)}	투자폴 위탁평잔	투자폴 비중 ^{주2)}
단기자산	71,350	35.02%	8,074	11.32%
현금성자금	21,949	30.76%	8,074	36.79%
유동성자금	49,401	69.24%	-	-
중장기자산	132,388	64.98%	25,138	18.99%
전체자산 합계 ^{주3)}	203,738	100.00%	33,212	16.30%

주1) 전체자산 중 해당자산의 비중

주2) 해당자산의 투자폴위탁 평잔 비중

주3) 전체자산 합계는 공자기금 예탁금을 제외한 평잔

3. 평가결과

3.1 평가결과 총괄표

평가지표 (비계량)	배점	지표값	투자플가점 반영 전 등급	최종등급
(1) 자산운용 체계	15.0		양호	양호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10.0		양호	양호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5.0		양호	양호
(2) 자산운용 정책	20.0		보통	보통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10.0		보통	보통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10.0		보통	양호
(3) 자산운용 집행	15.0		양호	양호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3.0		양호	양호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6.0		양호	우수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6.0		보통	양호
비계량지표 합계	50.0		양호	양호
평가지표 (계량)	배점	지표값	평가점수	최종등급
(4) 자산운용 성과	50.0		32.58	우수
1. 단기자산의 수익률	35W		10.94	탁월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10Wa	1.44%	1.08	탁월
②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15Wa	0.59%	1.62	탁월
③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10Wb	2.51%	2.42	탁월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15Wb	0.94%	3.64	탁월
⑤ 현금성자금 보유도	10W	0.71	2.19	양호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35(1-W)		12.51	양호
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17(1-W)	6.89%	11.05	탁월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18(1-W)	-0.64%	1.46	아주미흡
3. 위험대비 성과	7.0		2.63	보통
① 3년간 샤프비율	7.0	0.20	2.63	보통
4. 운용상품집중도	6.0		4.50	우수
① 운용상품집중도	6.0	43.93%	4.50	우수
5. 공공성확보 노력도	2.0		2.00	탁월
① 공공성확보 노력도	2.0	2.00	2.00	탁월
계량지표 합계	50.0		32.58	우수
조 정	가 점	단기자금 통합 운용제도 참여	0.37	
	감 점	자료제출 부실	0.10	
전체 합계	100.0			양호

* Wa(현금성자금/전체자산) + Wb(유동성자금/전체자산) = W(단기자산/전체자산)

* 1-W = 중장기자산/전체자산

3.2 비계량 평가지표별 세부평가항목 평가등급 빈도수

(단위 : 개)

평 가 지 표	S	A	B	C	D	F	해당없음
(1) 자산운용 체계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0	1	2	0	0	0	0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0	2	2	0	0	0	0
합 계	0	3	4	0	0	0	0
(2) 자산운용 정책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0	2	2	1	0	0	0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0	2	4	0	0	0	0
합 계	0	4	6	1	0	0	0
(3) 자산운용 집행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0	2	0	0	0	0	0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0	5	1	0	0	0	0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0	1	4	0	0	0	0
합 계	0	8	5	0	0	0	0
평 가 지 표 총 합 계	0	15	15	1	0	0	0

<참고> 전체기금 비계량 평가지표별 세부평가항목 평가등급 빈도수 평균

(단위 : 개)

평 가 지 표	S	A	B	C	D	F	해당없음
(1) 자산운용 체계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0.0	1.9	1.4	0.2	0.0	0.0	0.0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0.0	2.2	1.6	0.2	0.0	0.0	0.0
합 계	0.1	4.1	3.0	0.4	0.0	0.0	0.0
(2) 자산운용 정책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0.1	3.1	1.5	0.2	0.0	0.0	0.0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1.3	3.5	0.9	0.3	0.0	0.0	0.0
합 계	1.4	6.7	2.4	0.5	0.0	0.0	0.0
(3) 자산운용 집행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0.0	1.5	0.4	0.1	0.0	0.0	0.0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2.5	2.1	0.8	0.1	0.0	0.0	0.6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2.1	2.2	0.6	0.1	0.0	0.0	0.0
합 계	4.6	5.8	1.8	0.3	0.0	0.0	0.6
평 가 지 표 총 합 계	6.1	16.5	7.1	1.1	0.1	0.0	0.6

3.3 전기 평가결과 대비

평가지표	전기평가		당기평가	
(1) 자산운용 체계	우수		양호	
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우수		양호	
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우수		양호	
(2) 자산운용 정책	양호		보통	
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양호		보통	
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우수		양호	
(3) 자산운용 집행	우수		양호	
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양호		양호	
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효율성	우수		우수	
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효율성	우수		양호	
비계량지표 합계	우수		양호	
(4) 자산운용 성과	지표값	등급	지표값	등급
1. 단기자산의 수익률		탁월		탁월
①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	1.98%	탁월	1.44%	탁월
②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0.26%	탁월	0.59%	탁월
③ 유동성자금 운용수익률	3.26%	탁월	2.51%	탁월
④ 유동성자금 상대수익률	1.39%	탁월	0.94%	탁월
⑤ 현금성자금 보유도	0.89	보통	0.71	양호
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탁월		양호
① 중장기자산 3년 운용수익률	12.77%	탁월	6.89%	탁월
② 중장기자산 1년 상대수익률	4.48%	탁월	-0.64%	아주미흡
3. 위험대비 성과		탁월		보통
① 3년간 샤프비율	0.2826	탁월	0.20	보통
4. 운용상품집중도		보통		우수
① 운용상품집중도	44.72%	보통	43.93%	우수
5. 공공성확보 노력도		탁월		탁월
① 공공성확보 노력도	2.00	탁월	2.00	탁월
계량지표 합계	탁월		우수	
전체 합계	탁월		양호	

4. 자산운용 총평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973년 설립된 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0년 연간 자산운용 평잔은 2,037억원으로 이 중 713.5억원(35.02%)은 단기자산으로, 1,323.9억원(64.98%)은 중장기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 연간 자산운용 평잔 중 16.30%인 332억원은 연기금투자풀에 위탁운용되고 있음.
- 본 기금의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는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용실무협의회, 상품선정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산운용위원회, 운용실무협의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모두 과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상품선정협의회의 구성원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빈번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원안 의결에 그쳐 상품선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기획조정부,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재무관리부로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역량을 갖춘 내부전담인력이 많지 않아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는 외부전문기관과 업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금은 현금성자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적정 유동성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적정유동성 규모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자산의 만기별 배분이 이루어졌고 자산운용지침에 배분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2020~2024년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의 운용여건을 예측하였음. 2018년도부터 기금의 적립금 잔액이 매년 순증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이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수익률은 달성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정됨.
- 본 기금은 전체 운용자산의 35.02%를 단기자산에 투자하고 64.98%를 중장기자산에 투자하는 중형 사업성 기금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장기자산 운용 실적(배점 22.74점)에서 양호등급을 받았으나 단기자산 운용 실적(배점 12.26점), 운용상품 집중도(배점 6점)에서 이보다 높은 성과를 거둠. 그 결과 본 기금은 계량평가에서 32.58점(배점 50점)을 달성했으며 전체적으로 계량평가는 우수등급에 해당함.

□ 본 기금의 운용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기금은 자산운용 체계 구축, 정책 설정, 집행 과정에서 기금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둘째, 상품선정협의회의 경우 운용실무협의회의에서 논의된 시장상황 및 이슈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지만 운용전담인력이 제시한 투자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셋째, 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 2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군의 범위는 2인의 운용역이 감당하기 어려움. 전문인력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상호 견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넷째 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유동성 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저히 높은 운용실적을 시현하고 있지만 기금의 규모 및 내부 운용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 투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금의 현금성 자금의 상당액이 MMF이외에 ABCP, DLS 등의 신용보강을 필요로 하는 개별종목에 투자되어 고유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반면 벤치마크지수가 보유자산의 고유위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자산의 신용보강구조 및 신용보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고유위험을 분석할 토대를 갖출 필요가 있음. 다섯째, 중장기 자산배분의 경우 프로세스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의 실제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대체투자의 비중이 27.90%로 설정되었는데 실제로는 34.11%로 허용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배분되었고, 대체투자의 내용이 ELS, DLS로 파생결합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실행의 프로세스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곱째, 은행 및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선정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평가에 따른 특정 금융회사의 투자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

5.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1) 자산운용 체계

1.1 자산운용관련 거버넌스의 적정성

- 자산운용관련 위원회는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상품선정협의회 및 운용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1/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자산운용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하며, 일부 회의록은 회의의 충실성을 파악하기에 상세하지 않음.
- 상품선정협의회의 구성원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빈번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원안 의결에 그쳐 상품선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자산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

- 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 2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군의 범위는 2인의 운용역이 감당하기 어려움. 연기금 투자쪽에 일부 위탁운용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해결하고 있음.
 -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문적으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를 지원하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간의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상호 견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자산운용 전담조직은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전담조직과 분리되어 상호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음.
 - 자산운용 담당부서는 기획조정부, 위험관리 전담부서는 재무관리부로 상호 분리되어 있음.
 - 또한 다양한 교육, 연수, 세미나 참석을 통해 전담인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성과평가 전담조직은 별도로 두지 않고 외부 성과평가 기관에 위탁함.

(2) 자산운용 정책

2.1 자산운용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 자산군별 적절한 벤치마크의 설정과 이에 따른 자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기금의 필요수익률과 허용위험 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한 전략적 자산운용계획 설정이 필요함.
 - 자산군별 투자가능 상품군을 대표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제시되고 이 벤치마크 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
 - 자산군별 허용위험한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근거도 합리적이어야 함.
- 현금성자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적정유동성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 적정유동성 규모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자산의 만기별 배분이 이루어졌고 자산운용지침에 배분 비율을 명시하고 있음.
- 2020~2024년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의 운용 여건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목표수익률을 제시함.
- 전략적 자산배분의 도출 경위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함.
 - 전략적 자산배분안의 기대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반영하거나 허용위험한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함.
 - 중장기 자산배분의 경우 프로세스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 실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의 결정과정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특히 대체투자에 대한 높은 투자비중의 결정과정이 임의적이지 않은 지 검토해야 함.
-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위험에 관한 사항이 IPS에 적절히 명시되어 있음

2.2 투자실행정책의 적정성

- 내부운용과 위탁운용 정책이 자산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전문성과 시스템의 한계로 주식과 채권 등의 운용은 외부운용방식을 원칙으로 함. 반면에 연기금투자자의 위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위탁운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으나 상시 관리체계는 미흡함.
- 위탁금융기관 선정에 대한 현행 선정기준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 은행에 비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있는데, 업별 등급에 따른 투자한도를 동일하게 한다면 동일한 위험 수준이 업별로 적용되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 평가에 따른 특정 금융회사의 투자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함.
 - 위탁기관 선정 시 수익률 보장과 같은 이면합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IPS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상품교체 및 재투자 정책을 설정하여 IPS에 반영하고 있으며, 거래금융기관 선정 및 자금배분 프로세스가 설정되어 있음.
-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 등을 통한 투자다변화를 위하여 투자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기금의 관리 능력에 비해 대체투자(ELS, DLS 위주)의 투자비중이 34.11%로 상당히 높으며, 일부 금융회사에 투자위탁이 집중되어 있음.
 - 상품선정협의회의 대체투자에 대한 위험 검토가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자산운용 집행

3.1 투자실행과정의 적정성

- 기금은 월별로 자금운용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현금성 자금운용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 월별로 현금성 자금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월간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현금성 자금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 기금은 시장요인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점검하고 이를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에 보고함.
 -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자산운용계획의 미세조정 여부를 심의함.

3.2 자산운용 위험관리의 적정성

- 기금은 시장, 신용, 운영, 유동성 위험 관리방안을 IPS에 명시하고 시장위험 한도 등 또한 관리하고 있음.
- 불리한 상황 발생 시 대처 프로세스의 상세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실시되고 있음.
- 부실자산 목록 및 회수노력 등에 관한 상세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부실자산에 대한 회수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3.3 자산운용 성과관리의 적정성

- 만기별 자산군별 목표수익률, 운용수익률, 기준수익률의 차이와 성과요인 분석을 실시함.
 -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 설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 목표수익률과 실현수익률 사이의 차이의 원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 종목선택에 어느 정도 귀속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 각 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기금전체, 상품별, 자금별 위험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샤프비율, 정보비율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함.
 - 각 자산군별로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위험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성 및 정량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용기관의 자금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목표수익률과 기준수익률의 차이 및 원인분석 결과의 활용 근거자료가 부재함.
- 공시정책을 마련하여 IPS에 반영하고 기금운용기준, 투자현황, 외부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함.

(4) 자산운용 성과

4.1 단기자산의 수익률 및 적정 유동성

- 본 기금은 단기자산 714억원 중 현금성자금에 219억원(30.76%), 유동성자금에 494억원(69.24%)을 배분하여 운용함. 유동성자금은 전액 직접 운용하며 현금성자금 중 36.79%를 연기금 투자물에 위탁 운용함.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 모두 절대수익률과 상대수익률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임. 현금성자금 보유도는 양호등급을 받아 단기자산 성과는 전반적으로 탁월등급임.
-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의 운용수익률은 각각 1.44%, 2.51%이며 상대수익률은 평가기준수익률 대비 0.59%p, 0.94%p를 초과함.
- 단기자산 운용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MMF, 확정금리형, 채권형 등 일반적인 단기 금융상품이 아닌 ABCP, DLS 등 수익추구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임.

4.2 중장기자산의 수익률

- 본 기금은 중장기자산 1,324억원을 채권형 39.7%, 파생형 38.75%, 대체투자 13.74%, 주식형 7.8%에 분산투자함. 채권형의 47.82%를 제외한 자금을 직접 운용함.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6.89%로 타 기금대비 높은 편으로 탁월등급을 받음. 이에 반해 상대수익률은 -0.64%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음.
- 본 기금의 높은 운용수익 성과는 수익률이 높은 주식형과 파생형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ELS, ELF 등 수익률이 높은 파생형 상품 비중이 38.75%이며 코로나19 충격 이후 활황 장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 비중 또한 7.80%를 차지해, 주식형과 파생형 상품이 전체의 46%에 해당함.

- 반면 평가기준수익률 대비 성과는 저조함. 주식형상품의 수익률은 평가기준 수익률 대비 0.02%p 하회함. 또한 13.74%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체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0.06%로 평가기준수익률인 6.01%에 크게 못 미침. 그 결과 상대수익률 평가에서 아주 미흡한 결과가 도출됨.

4.3 기타

- 위험대비 성과지표 평가에서는 샤프비율이 0.2로 보통등급을 받음.
- 본 기금의 운용상품집중도는 43.93%로 우수한 수준임. 파생형상품과 대체투자 상품에 52.50%, 채권형상품에 39.70%, 주식형 상품에 7.80%가 분산투자됨.
- 공공성 확보 노력도는 신성장동력펀드에 38억원을 투자하여 만점을 획득함.

4.4 총평

- 본 기금은 전체 자금 2,037억원을 단기자산에 35.02%, 중장기자산에 64.98%로 배분하여 운용함. 중장기자산 평가와 위험대비 성과 평가에서 각각 양호등급과 보통등급을 받았으나 단기자산 평가와 운용상품집중도 평가에서 탁월등급과 우수등급을 받아 기금 전체 평가는 우수등급임.
- 본 기금의 우수한 성과는 운용상품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되나 중장기자산과 단기자산 모두에서 명목성과를 위하여 과도한 운용위험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우려됨.
 - 본 기금의 중장기자산은 국내 주식 직접투자 7.8%를 비롯하여 ELS, DLS 등 원금손실형 파생형 상품이 38.75%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 또한 13.74%로 높은 편임.
 - 중장기자산 뿐만 아니라 단기자산 또한 수익추구형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함. 단기자산에서 일반적으로 투자되는 확정금리형상품 또는 채권형 상품은 투자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단기자산의 88.13%가 ABCP, DLS 등 수익추구형 상품에 투자되고 있음.
- 가시적 성과 달성뿐만 아니라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구성상품의 분산도와 위험도를 점검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기금은 현재 운용인력과 위험관리인력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또한 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극소수의 인력이 주식, 채권, 파생형 상품을 비롯하여 대체투자 등 모든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운용과 리스크 관리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기금의 단기자산은 MMF 및 MMDA에 11.87%가 배분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금이 ABCP, DLS 등을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어 유동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연기금투자품을 비롯한 일반적인 MMF 등의 상품에도 유사한 수익추구형 상품이 편입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품분산도, 운용인력 구성과 위험관리 시스템의 체계 및 규모 차이를 고려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위험관리와 위기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자체적 검토가 필요함.
- 과거 기금 평가에서도 단기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바 있으며 현금성자산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 2020회계연도에는 단기 위험자산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기금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됨.
- 또한 본 기금은 중장기자산의 운용수익률에서 탁월등급을 받은 한편 상대수익률에서는 아주미흡 등급이 도출됨. 수익성이 높은 상품군을 적극적으로 편입한 결과 절대수익률은 높아졌으나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임. 극단적 결과가 도출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이 필요함.